

# 캔버라 한인성당



|전담신부|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주일미사| 오후 3시

|고해성사| 주일미사 전 30분

|성당주소| 7 Bindel St. Aranda, Act 2614

|이메일| canberra.kcc@gmail.com

|전화| 0490-795-346

|카카오톡 채널|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미사 성가번호|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128 (형제여 기뻐하라 알렐루야)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166 (생명의 양식)	132 (감사의 송가를)

### 제 1독서 | 사도행전 3,13-15,17-19

#### 화답송 |

- ◎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 저를 의롭다 하시는 하느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곤경에서 저를 구해 내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제 기도를 들으소서.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 주신다. ◎
- 많은 이가 말하나이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 주랴?”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
- 주님, 당신만이 저를 평안히 살게 하시니, 평화로이 자리에 누워 잠드나이다. ◎

### 제 2독서 | 요한 1서 2,1-5ㄱ

#### 복음 환호송 |

##### ◎ 알렐루야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 알렐루야

#### 복음 | 루카 24,35-48

#### 영성체 후 묵상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며 기다립니다. 의심을 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이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 오늘의 복음, <루카 24,35-48>

The disciples told their story of what had happened on the road and how they had recognised Jesus at the breaking of bread.

They were still talking about all this when Jesus himself stood among them and said to them, 'Peace be with you!' In a state of alarm and fright, they thought they were seeing a ghost. But he said, 'Why are you so agitated, and why are these doubts rising in your hearts? Look at my hands and feet; yes, it is I indeed. Touch me and see for yourselves; a ghost has no flesh and bones as you can see I have.' And as he said this he showed them his hands and feet. Their joy was so great that they still could not believe it, and they stood there dumbfounded; so he said to them, 'Have you anything here to eat?' And they offered him a piece of grilled fish, which he took and ate before their eyes.

Then he told them, 'This is what I meant when I said, while I was still with you, that everything written about me in the Law of Moses, in the Prophets and in the Psalms has to be fulfilled.' He then opened their minds to understand the scriptures, and he said to them, 'So you see how it is written that the Christ would suffer and on the third day rise from the dead, and that, in his name,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 would be preached to all the nations, beginning from Jerusalem. You are witnesses to this.'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이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게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 복음 나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새겨진 상처를 이야기함으로써 부활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분이 라는 사실을 전해주었던 지난 주일의 복음은(요한 20,19-31) 주님 부활의 육체성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복음 또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진정시키며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 주시는 모습을 전함으로써 부활하신 분의 육체성을 되새기도록 인도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성을 강조하는 복음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육체를 경시(멸시)하고 영혼만을 중시하며 영과 육을 대립하는 것으로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육체로부터의 해방이라 여겼던 영지주의적 사고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알려줍니다. 제2독서의 말씀이 일깨우듯이 영적인 체험이나 앎을 통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라는 계명을 따름으로써(1요한 2,3-5), 곧 몸으로 믿음을 살아감으로써 구원된다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성을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들은 보여줍니다. 믿는 이들에게 영혼만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과 존재가 구원되는 것임을 일깨우는 주님 부활의 이야기들은 영과 육이 분리된 것이 아니듯이 믿음과 삶이 분리될 수 없음을 깨달도록 인도하며, 그렇기에 하느님의 구원을 믿고 희망하는 이들은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몸으로 그 믿음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지니고 계셨다는 복음의 증언은 부활이 십자가 죽음의 열매임을 깨달도록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거기에 새겨져 있는 상처는 부활하신 분이 곧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낮추셨던(필리 2,8 참조)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부활하신 분의 몸에 존재하는 상처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징이 됩니다. 이를 통해 복음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십자가들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듯합니다. 또, 각자가 만나는 고유한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 역시도 부활의 신비에 함께하게 된다는 것을 일깨우며 용기와 희망을 지니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곧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표징이 되었듯이 우리의 몸과 삶도 믿음과 희망을 증언하는 표징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몸으로써 믿음을 살아가며 온전한 나 자신이 되어 가는 기쁨을 통해 부활의 신비를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서울대교구 Fr.박경근 아우구스티노>



## 공지 사항

### 1. 다음주 주일미사 장소 변경 (4월 21일)

아란다 성당(St.Vincent's Church) 로비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 공사가 급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4월 15일(월)부터 27일(토)까지 성당은 잠시 폐쇄되며, 평일과 주일 미사 모두 '페이지 성당'(St.Matthew's Church)에서 봉헌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 (4월 21일) 주일 한인미사는 '페이지 성당'에서 봉헌됩니다.

**\* St.Matthew 성당 주소:**

=> 12 Chewings St, Page ACT 2614

### 2. 주임신부 휴가 및 손님 신부님들 미사 집전 안내

4월 15일(월)부터 5월 3일(금)까지 한국으로 휴가를 다녀옵니다. 이 기간 한인성당 주일미사는 2분의 손님 신부님들께서 집전해 주십니다.

4월 21일(주일) : Fr.손상복 요한보스코

4월 28일(주일) : Fr.Renoir Oliver

### 3.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가톨릭 교회의 입교성사인 세례성사를 위한 예비자 교리반을 모집합니다. 주변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계신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5월 11일까지 성당 이메일 canberra.kcc@gmail.com 혹은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4. '여정 - 시즌 1' 안내

- 가톨릭 교리 강의 및 '거룩한 독서' 나눔 모임
- 기간: 5월 12일(주일) ~ 6월 30일(주일) (총 8회)
- 모임 시간: 매 주일 오후 1:00 ~ 2:20
- 프린트물 및 나눔 준비를 위하여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5월 11일까지 성당 이메일 canberra.kcc@gmail.com 혹은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 미사 참여자 수 |

3월 31일	유아 청소년: 32명	성인: 66명
4월 6일 (다문화미사)	유아 청소년: 5명	성인: 25명

###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b>매주 화요일 저녁 7시</b>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 전례독서 봉사자 |

이번주 (4월 14일)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내
다음주 (4월 21일)	주정자 루치아, 이민정 글라라

### |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4월 14일)	루카반
다음주 (4월 21일)	마르코반

### | 우리들의 정성 (3월 30일 ~ 4월 12일) |

봉헌금	\$ 408.10			
교무금	\$ 1,020			
구민식	김천주	김정수	남궁영근	손재호
안영규	양명식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장호훈	전인철	조성희	주정자
황병욱	허준			

### | 교무금 온라인 납부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교무금을 온라인으로 보내주실 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Gildong Hong)

### | 기도 지향 |

*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을 위해
*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를 위해
* 예비 신자들을 위해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